



# 희미해져 가는 스피커 소리

## 약학과 이세영

하루를 늘 정확한 시간에 맞춰 울리는 스피커 소리로 시작했다. “일어나서 씻어라, 학교 가기 전에 아침 먹고 가려면 지금 일어나야 해” 주말이면 “방 청소 좀 해라, 나가서 운동 좀 해라”의 유사한 소리도 있다. 엄마는 ‘스피커’다. 정확한 시간에 맞춰 울린다. 아빠와 우리 삼 남매는 그 소리에 맞춰 기상하고 그 소리에 맞춰 잠들었다. 우리는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뻔히 다 알고 있었지만, 스피커 소리가 들려와야만 그제야 몽그적대며 움직이곤 했다. 스피커 소리는 매우 컸다. 적어도 우리가 고등학교를 무사히 마칠 때까지는 말이다. 사실 너무 크게 다가와서 볼륨을 끄고 전원을 뽑고 싶을 때도 있었다. 우리 남매는 자라서 대학 진학을 위해 차례로 집을 떠났고, 그때마다 엄마의 스피커 소리는 우리도 모르게 줄어들고 있었다.

우리가 그 소리가 작아진 걸 직접 인지했을 때는 아빠가 아팠을 때이다. 아빠는 ‘전류’다. 스피커의 성능과 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전류가 약해지니 스피커 소리도 안 나오는 게 당연했다. 아빠는 엄마처럼 우리에게 직접 소리치지 않았다. 우두커니 우리가 내심 필요한 것이 있어 보이면 몰래 용돈을 쥐여 주었고, 가족 중 누구라도 힘들어 보이면 그날 퇴근길엔 항상 깜짝 야식을 양손에 들고 와 가족을 충전시켰다. 눈에 띄진 않지만 따뜻한 전류가 끊임없이 우리 가족을 흘러가게 함을 우리는 알고 있었다. 키가 2m나 되는 듬직한 체격의 아빠가 갑자기 쓰러지신 것은 가족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다. 엄마는 집을 떠나 아빠의 병간호에 온 힘을 썼기에 스피커는 한동안 울리지 않았다. 우리의 간절함과는 달리 아빠는 병을 이겨내지 못했다. 전류가 사라지고 우리는 한동안 마비된 채로 있었다. 스피커 소리도 장례를 치른 후 거의 한 달간은 들리지 않았다. 우리는 타지에서 고장 난 스피커가 살아있는지만 전화로 간간히 확인할 뿐이었다. 우리의 지지직거리는, 버벅대는 소리가 들렸던 건지 다행히도 엄마는 서서히 살아났다. 전류 없이 혼자서 충전이 가능한 블루투스 스피커로 업그레이드되었는지 엄마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가 온다. 다행이었다.

삼 남매 중 첫째는 ‘동그라미’다. 둥글둥글하게 누구와도 쉽게 친해지고 서글서글 인상도 좋다. 둘째와 막내에게 없는 애교 유전자를 몽땅 물려받았는지 엄마와 함께 집안 분위기를 화목하게 하는 일등 공신이다. 동그란 큰 눈을 가져서인지 울음도 많고 겁도 많다. 시골집에서 별레라도 나오면 둘째 별이에게 잡아달라 난리를 쳤고, 별이의 2층 침대까지 올라와서 같이 자곤 했다. 평소엔 만이로서의 모습을 찾지 힘들지만, 나름 장녀의 책임감은 있는지 낮가리는 동생들이 사람들 앞에서 쭈뼛대면 자기 옆에 앉혔고, 곤란한 일을 겪을 때면 해결책을 찾아 대신 나서주곤 했다. 그래서인지 부모님께도 제일 믿음을 주는 든든한 자식이다.

둘째는 ‘별’이다. 빛을 내는 별처럼 정체성이 뚜렷한 아이였다. 키로는 반에서 꼴등이면서도 자기가 제일 잘났다는 듯이 자신감 넘치게 걸어 다녀서 멀리서 봐도 누구나 별이를 알아볼 수 있었다. 첫째 동그라미는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항상 손쉽게 얻는 재능 많은 동생을 부러워했다. 머리가 좋아서 벼락치기로 공부해도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고, 운동도 곧잘하고 리더십도 있어서 학교에서 반장을 도맡아 했다. 하지만 모범생이라 불리지는 않는 특이한 아이였다. 자기주장이 강한 별이는 고분고분 선생님들께 순응적이지 않았고, 문제를 일으켜 부모님이 학교로 불려간 경험은 삼 남매 중 별이가 유일했다. 부모님은 첫째 동그라미처럼 휘어질 줄 모르고 삐죽삐죽 날카로운 별 모양을 가진 둘째가 항상 걱정이다.

막내는 ‘네모’다. 첫째처럼 둥글지도 않고 둘째처럼 빛을 내지도 않는 평범하디 평범한 네모다. 옷질 않으면 네모처럼 뚱한 무표정이라서 다른 사람들이 쉽게 다가설 수 없다. 삼 남매 중 유일하게 남자아이라서 그런지 커가면서 점점 누나들과도 벽이 생긴 것 같다. 어릴 때는 장난기도 많고 곧잘 웃어서 귀여웠는데, 덩치가 커갈수록 자신만의 네모상자를 넓혀 가더니 상자 안에 자기를 가둬버리곤 나오질 않는다. 잘 다니던 대학을 그만두고 고향 집에 내려와서는 온종일 방에서만 상자처럼 지낸다. 우리는 그런 네모가 걱정이다. 어떤 상처를 받은 건지 네모는 상자 안에 꼭꼭 숨기고 보여주지 않고 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네모는 엄마의 스피커 소리에는 반응한다는 것이다. 장을 볼 때면 엄마의 짐꾼이 되어주고, 엄마가 교회에 갈 때면 운전기사 노릇을 해준다. 우리는 네모의 각진 모서리가 둥글게 아물 때까지, 어두운 상자에 별빛이 깃들 때까지 천천히 기다려주기로 했다.

우리가 커갈수록 엄마도 나이가 드는지 스피커 소리는 작아져만 간다. 소리는 희미해도 우린 스피커에서 나올 음성을 뚜렷하게 알고 있다. 그래도 희미하게라도 계속 들렸으면 좋겠다. 엄마의 스피커에서 우린 아빠도 느낄 수 있다. 엄마는 매일 교회에 가서 같은 기도를 드린다. ‘아빠의 마지막 당부대로 첫째는 가족을 둥글게 하고 동생들을 정답으로 이끌어주고, 둘째는 가족을 위해 별빛을 비추어주고, 막내는 안정적인 네모처럼 굳건하고 듬직하게 가족들을 지탱해주기를’ 엄마의 스피커 소리를 가까이서 더 크게 느끼고 싶어 이번 주말엔 고향 집에 내려가야겠다.